

# 석전 황욱 삶과 예술혼 되새긴다

국립전주박물관 석전기념실 새단장... 작품 전시·영상 상영

국립전주박물관 석전기념실이 새단장을 마치고 4일 관람객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석전기념실은 서예가로 널리 알려진 전북의 명필 석전 황욱을 기리는 전시 공간이다.

특히 석전기념실은 1990년 황욱의 아들 황병근이 5천여 점에 넘는 수집품을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하면서 2002년 11월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 잠시 문을 닫았던 석전기념실을 새롭게 꾸며 석전의 서예작품을 비롯한 문방사우, 옛 책과 편지와 수집품 등을 전시하고 석전의 삶과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상영했다.

석전기념실에서는 황욱의 글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시실 한 곳에 마련된 영상 상영 공간

에서는 황욱이 남긴 전주 오목대, 한벽당 요월대 현판을 비롯해 고창 계산서원, 고창음성,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정읍 무성서원 태산사 등 전북의 여러 명소의 현판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욱이 사용했던 안경, 담뱃대 같은 유품과, 문방사우로 대표되는 글씨 쓰는 도구들을 모아보는 공간도 마련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석전기념실은 석전 황욱의 서예를 소개하면서 관람객들이 서예 작품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국립전주박물관의 석전기념실에서 역경을 극복한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예술정신으로 이뤄진 석전의 삶과 그 속에서 탄생한 예술혼이 깃든 개성적인 글씨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좌수악필로 휘호하는 석전 황욱

## 군산대 김준 교수, 피아노 독주회 19일 개최

음악의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준 교수의 김준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9일 저녁 7시 30분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독일에서 영향력 있는 권위자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퐁(FAZ)으로부터 '섬세한 감성과 견고한 테크닉의 피아니스트'라는 극찬을 받은 피아니스트 김준은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주자 및 교육자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독주회는 피아노의 구약성서라 불리는 바흐 평균율 중 BWV 883 in f-sharp minor,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Standchen(세레나데)과 Auf dem Wasser zu Singen(물 위의 노래), 리스트가 편곡한 바그너의 Isolde's Liebestod from Tristan und Isolde(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의 Alborada del gracioso(어릿장난의 아침노래)와 Le Tableau de Couperin(쿠프



판대의 아침노래)와 Le Tableau de Couperin(쿠프

랭의 무덤)을 연주해 한겨울밤의 진한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준 교수는 "2019년도 독주회 이후 정말 오랜만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군산에서 독주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연말연시 독주회를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며, 저의 음악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어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군산 지역사회 소통음악회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12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개최되고,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총 70분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북대 박물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은 지역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및 체험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영화 감상을 돕기 위한 행사다. 이에 전북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8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전주시 수어통역센터 회원들을 초청해 강제규 감독, 하정우, 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이라는 영화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접자 책갈피 만들기, 수어 거울버튼 만들기, QR코드 전시해설 체험, 그리고 비장애인이 안대와 귀마개를 쓰고 눈으로 듣고, 소리로 보는 영화 체험 등이 진행된다.

특히 배리어프리 영화관람과 모든 체험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수료발표회 개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료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총 11개 강좌로 72명의 수료생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수강생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었다.

대금, 해금, 가야금, 판소리, 한국무용, 고법반이 발표회를 가졌으며, 각 반에서 우수 수강생을 선정해 수료증 수여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했다.

김중현 원장은 "2024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과목으로 수강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악을 사랑하는 국



악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려청자, 하늘을 비취다' 테마전

정읍시립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협업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

정읍시립박물관은 고려청자와 정읍의 청자 문화를 알리는 테마전 '고려청자, 하늘을 비취다'를 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정읍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안청자박물관과 협업해 진행된다.

전시 유품로는 부안 유천리에서 출토된 청자 양각 무늬 원형 벼루와 청자 상감 인물 무늬 매병, 청자 오리 뚜껑 연꽃무늬 항로, 청자 음각 연꽃무늬 긴목 병 등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총 35점의 청자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정읍에서 발견된 청자 주전자, 청자 상감 국화무늬 접시,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대접 등의 청자를 한자리에 살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청자에 새겨진 용과 모란무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전시 도입부에서 감상할 수 있고, 고려청자 그리기, 청자 퍼즐, 전시 활동지 등 전시 연계 체험을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청자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테마전을 통해 고려



시대 문화의 정수인 고려청자와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를 감상해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되돌아보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은성=김대환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시각예술 분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에듀센터 '콩'이 4일 개관했다.

## 김병종미술관 에듀센터 '콩' 개관

미술 관련 교육·체험 공간으로 오늘부터 시범 운영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시각예술 분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에듀센터 '콩'이 4일 개관해 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콩'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과 지리산 권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미술 관련 교육·체험 공간으로서, 풍채롭 무려무려 자라나 많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다.

'콩' 시설은 창작실, 교육실, 실감미디어 전시실, 미용용품 가게(아트 숍)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작실에서는 버려지는 플라스틱병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실에서는 신체 표현을 통한 미술 활동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감미디어 전시실에서는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한 미디어 전시를 선보일 예정으로, 올해는 김병종 화백의 화홍산수, 풍죽, 카리브 등 색채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영상 전시가 마련되어 있으며, '콩'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운영 문의는 전화(063-620-5660)로 하면 되고 네비게이션 주소는 남원시 함과우길 65-160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